
第12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5月28日(月) 午前10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의件 ... 1面

(10時 38分 開議)

○委員長 鄭在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희相 團長을 비롯한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주변지역 환경 정비 업무 등 建設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차원높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所管業務報告의件

(10時 39分)

○委員長 鄭在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全希相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존경하는 鄭在天 委員長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建設團에 보내 주신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금 현재 경기장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9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과 조정을 거쳐서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저희 월드컵경기장은 오늘 현재 전체 87%의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建設團 전 직원은 전세계인의 꿈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저희 월드컵 주경기장을 차질 없이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建設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建築擔當官 金孝洙, 設備擔當官 鄭輔喜)

그러면 저희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의 금년도 현재 진행중인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하고 인력, 건설개요는 그 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報告)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業務報告

(뒤에 실음)
.....

마포농수산물시장 정비에 대한 추진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외관이 상당히 퇴락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정비방안을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협의해서 죽 해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建設團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정비를 보고해 드릴 麻浦開發公社 尹丙汝 事業理事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입니다.

그럼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준비된 자료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정비계획을 보고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在天; 建設團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鄭鉉均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鄭鉉均 委員; 鄭鉉均委員입니다.

지금 상암동 건축이 물론 공정에 따라서 착실히 잘 진행된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우려된 부분이 지금 상암동 경기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장 외적요소,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도, 물론 우리 상암동구장 뿐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구장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주변 여건이 경기장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쓸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團長께서는 앞으로 좋은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라 그러셨지요?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네.

○鄭鉉均 委員; 아까 슬라이드 설명할 때 이쪽 도로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 부분을 차폐하는 수목식재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예산에도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데 수목식재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수목은 안 돼 있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안 돼 있는데 하겠다고 보고를 하세요? 엉터리 보고 아니에요?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그 실외기만을 저희가 차폐하는.....

○鄭鉉均 委員;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실외기를 차폐하기 위해서 이쪽에 수목을 심어서 그것을 차폐하겠다고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조정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설명할 때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은 것 같은데요.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그 문제는 저희가 월드컵建設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한테 협의됐던 계획안은 지금 현재 바깥에 아주 지지분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죽 있고, 그 다음에 가스통 같은 게 죽 있습니다.

그래서 1.8m 정도로 가림막을 죽 치고 그 바깥으로 쥐똥나 무나 이런 것으로 차폐하는 것, 왜냐 하면 거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 심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막아서 바람이 안 통하게 막고,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별도의 펜스를 쳐서 막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인도쪽으로 가로수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러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이번에 개선공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월드컵을 개장하면서 그것이 미관상 나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관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봐서 딱딱한 맛이 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가 나올 수 있는 게 미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철자재 같은 것으로 차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수목식재를 해서,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철조구조물로 덩그러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수목으로 해서 바깥에서 봐서도 딱딱함이 들지 않게끔, 많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 알겠습니다. 저희가 쥐똥나무 등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하여튼 쥐똥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그 철조구조물에 너무 식상하지 않게끔 계획을 해 주고, 事業理事는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建設團長께서는 아까 얘기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동아일보 보셨어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봤습니다.

○鄭鉉均 委員; 거기에 봐도 삭막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있는 정비대상 22개 시설 이것은 여러 가지 관계부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建設團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치우고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 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선 환경적으로 봐서는 저희 서울시 관계가 아니고 고양시계 내에 있는 골재,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양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치우는데 수십억이 든다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측에서는 사실상 서울시 민이 갖다버린 폐기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지고 치워라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 동안 總理室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얼마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월드컵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권 내에 보이는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골재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골재는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구간 내의 월드컵 주변정비에 주요 되는 내용이 난지도 밀레니엄공원, 그리고 주변도로 공사입니다.

그 동안에 관련되는 공사를 주로 하던 데가 동아건설이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동아건설이 파산되어서 다소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산된 동아건설의 지분을 전부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아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들이 매달 관련 관계관들을 부시장 주재로 계속 매달 회의를 하면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서울만큼은 도로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불문하고 타 경기장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욱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지금 우리 단장께서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전임 단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없이 차질 없이 잘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하절기가 지나고 곧 있으면 동절기가, 지금 벌써 5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또 몇 개월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동절기 때는 또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월드컵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경관입니다. 월드컵구장은 아마 차질 없이 되는 것 같은데 주변경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이제야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한다, 되겠어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고 난 뒤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사막 위에 덩그러리게 건축물 하나를 세워 놓은 그런 느낌을 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다 뭔가 수목 식재를 해서 숲을 만든다든지, 좀 그런 구상이 없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고양시계에도 저희들이 전부 자유로변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놨기 때문에 지금쯤 가서 보시면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鄭委員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거

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 사진 보셨죠? 굴 난 부분.....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터널 위에도 지금 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복토는 다 끝났고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鄭鉉均 委員; 왼쪽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왼쪽은 영접소 부지거든요. 영접소 부지라서 그것도 곧 정지작업만 하고 거기에 각종 FIFA에서 텐트 구조물로 해서 영접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들을 거기로 일단 오시도록 해서 대회기간 때 운영하는 임시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평탄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기장에서 보이는.....

○鄭鉉均 委員; 경기장 건너편 도로 왼쪽에,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아무 구조물이 없이 편편하게 되어 있던데.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경기장 구조물 왼쪽이라니요?

○鄭鉉均 委員; 경기장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 쪽에, 굴 있는 옆에.....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FIFA 영접소 부지입니다. 대회기간중에 VIP들을 별도로 거기로 오시도록 해서 차도 놓고 하면서 환담도 하다가 대회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鄭鉉均 委員; 그러면 건축구조물 앞으로 지을 겁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임시시설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탄작업만 하면 되고, 경기장 쪽으로는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鄭鉉均 委員;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들 듣고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번 경기장을 지어놓고 올림픽경기장처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올라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시민, 각계 여러분들이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在天; 鄭鉉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奇德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金奇德 委員; 방금 전에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업이사과 김효수 과장께서 참석을 해서 그 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농수산물시장의 존폐여부 등 얘기가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약 6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었고, 또 지금 시장이 경영마인드의 기법을 도입을 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론이 모아지고, 오늘 관계자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했지만 이왕이면 영구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市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용역사업 시행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질의가 나오면 단장께 질문하도록 하고 관계자를 퇴석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委員長 鄭在天; 金奇德委員 의사진행 발언대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 관계자께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까 보고사항을 끝냈으니까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任元彬委員 질의하십시오.

○任元彬 委員; 任元彬委員입니다. 우리 단장님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모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의 기본운영과 건설현황에 대한 마인드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은 인류의 꿈과 희망을 담은 스포츠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은 세계인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대과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한 마디로 구태의연한 업무보고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4회의 정기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거의 판에 박은 듯한 업무보고 내용이며, 건설현황보고를 가끔 곁들이는 식의 형식적이며 타성에 젖은 업무보고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全希相 건설단장이 금년 초 부임한 후 직원들의 근무자세

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한 사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겠지만 월드컵건설단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진취적인 분위기가 아닌 착가라앉은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라는 것을 본위원이 최근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한 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설단장에 당부합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생기 있고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 시책을 연구하여 실천하는데 솔선수범 하여 주시고,

둘째, 직원들의 창의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을 과감히 수용하고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월드컵 건설의 열기와 참모습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셋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근무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여건을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내가 지금 단장님께 읽어드렸는데, 이 점에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任委員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동안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겸허하게 제 자신을 반성하고, 현장의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任元彬 委員;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귀양간 기분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 도급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최일선에서 직접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은 공사비를 적법하게 지급하였겠으나 국내 최초 최대의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다 보니 당초 예상하지 못 하였던 자재, 시공기술, 공사계약기간 등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당초 경기장 건설 계약내용을 월드컵건설단 및 삼성측이 고집하므로 현재 5개 하도급업체가 부도처리되었고,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 등이 타결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부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위원회는 이에 월드컵건설단, 삼성, 하도급업체, 그리고 감리단, 건설위원 등으로 계약 및 공사내역 전반에 걸쳐 정밀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적법한 공사비 증액으로 판단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의 월드컵, 문화의 월드컵, 평화의 월드컵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시작에서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첫째, 들어가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도급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현장 소장이 송도현 전무로부터 이승학 상무로 지난 5월 15

일자, 맞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任元彬 委員;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전 국민의 관심은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경기장 건설인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 주경기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각종 최신식 시설과 장비는 물론 최고의 시공기술과 관리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으로서 이를 총괄하는 건설 현장소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울산, 수원, 대구 등의 월드컵경기장은 개장후 시설사용 결과 비가 새고 의자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등 크고 작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도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아니한 전무를 교체한 것인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그 실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사고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말고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 6개월 후면 모든 시설 및 장비 설치와 조정, 시운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바뀐 소장이 2,000여 억에 이르는 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언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형식적 답변을 생략하고 구체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아까 任委員님 오시기 전에 바뀐 所長이 여기 위원님들 간담회장에 오셔서 인사를 드

렸습니다, 任委員님이 안 계셨는데.

所長 교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측에 상당히 유감된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동안 죽 이끌어 왔던 所長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교체문제가 저희 建設團하고 삼성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같았으면 저희들이 미리 알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했거나 조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所長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서 송도현씨가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建設團하고 삼성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제가 다음 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 두번째입니다.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실태 조사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모두의 발언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주경기장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60여 개 하도급업체, 당초에는 이것이 몇 개 업체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25개 업체입니다. 상당수는 하도급 계약금액

이 너무 적게 계약됐을 뿐만 아니라 완벽공사를 추구하는 월드컵建設團과 삼성, 그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재의 고급화, 재시공, 장기공사 등으로 시공한 결과 자금압박을 받아 부도처리된 업체가 현재 5개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는 부도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업체인 M사의 경우는 32억원의 도급계약 금액이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최소 16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입수한 시공 하도급업체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것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실태과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실태 조사기구의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 기구는 월드컵建設團, 삼성, 하도급업체, 감리단, 건설위원 등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직접 조사·확인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기구의 구성, 업무, 조사방법, 지원 처리방안 등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기구의 조사에는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사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투입이 완벽한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서울시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建設團長은 소신있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질의 세번째입니다.

월드컵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것이 아마 文化觀光部지요? 그렇지요? 질의할테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任元彬 委員;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홍보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금년도 월드컵경기장 방문, 홍보관련 예산은 2억 3,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任元彬 委員; 이에는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1억 7,800만원, 맞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任元彬 委員; 홍보관 및 자원봉사자 운영관련 예산이 6,000여 만원 등 이러한 예산인데 홍보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團長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홍보관 운영에 대한 금년도 예산현황은 2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4,300만원을 했고 1억 6,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미집행액은 건설 홍보물이 8,250만원, 기념품

제작이 9,68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2,880만원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홍보관의 홍보물을 좀더 내실있게 하거나 좀더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사각버튼, 아트미러, 문진, 컵받침, 타일액자, 배지.....

○任元彬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런 것들이 죽 있고 그런데.....

○任元彬 委員;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다시 묻겠어요. 방문객에게는 홍보 팸플릿 및 리플릿을 각각 1만 5,000부씩 합계 3만부를 제작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 현재 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앞으로 5만여 명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 금년도 방문객수는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만명이 넘었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런데 이러한 홍보예산으로는 방문객에게 홍보물조차 한 부씩 배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더구나 기념배지, 라이터, 볼펜 등 각종 기념품은 유상으로만 판매하게 되어 있어 월드컵경기장 방문객의 기대를 반감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가져 왔어요. 이것 무상이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任元彬 委員; 이것도 떨어졌어, 이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세계월드컵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냐고.

책자도 없어요, 책자도. 책자도 없고 달랑 이것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디 홍보하겠느냐고. 예산을 왜 남기냐고.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1/3도 안 썼단 말이에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지금 제작을 하려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템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템을 바꿀 것이냐.

○任元彬 委員; 빨리 하셔야지, 지금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씩 오는데 말이지, 1만부, 2만부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야.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위주로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국인들한테 소홀히 한다기 보다도 그래도 멀리서 저희 홍보관을 찾아주신 외국인들을 위주로 해서 기념품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배지나 이런 것, 하여튼 마스코트를 상징물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쥐 봐야 끼지도 않아요, 안 껴. 동네에 가면 이것 버린다고. 상징물이 나와야지.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하여간 우리 월드컵 홍보 실무책임자들, 그리고 담당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88서울올림픽 때의 홍보 운영 경험을 살려

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원봉사자 조직 및 운영방안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업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수는 60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평일에는 7 내지 10명이 안내 및 질서유지 등의 자원봉사 업무를, 많은 때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이 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실정에 비추어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봉사요원을 방문신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얼마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2,400원입니다.

○任元彬 委員; 제가 보기에 5,000원 같은데, 중식까지 해서 5,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중식비가 3,000원 해서.....

○任元彬 委員; 5,000원입니까, 5,500원입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중식비 3,000원 해서 5,400원입니다.

○任元彬 委員; 이것 상향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상향조정이 안 됩니까? 가 보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 안타깝더라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任元彬 委員; 열심히 하시는데 힘에 부치는 것 같아. 하루에 500명 말을 하고 다 해 보세요, 나이드신 분들이. 어떻게 패기 있고 젊은 사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

가기 때문에, 자원봉사 홍보관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은퇴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제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렇다면 인원도 좀 확보를 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내가 직접 한번 해 보니까 제 느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이.

그러니까 인원확보도 좀 하시고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團長님께서 이런 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삼성의 所長이 교체된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내적도 그렇고 외적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월드컵에 아마 제가 보기에선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 나오면 내가 각 업체 명단 다 가져와서 실태 파악 다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주세요.

세상에 우리 월드컵도 문제가 많은 게 업체 사장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업체 사장 이름도 없어.

이것 다 알고 있어야 돼. 사고나면 즉시 불러다가 책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전연 안 돼 있다 이 말이지.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任委員님 말씀중에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더 파악을 해야 되겠고, 물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직접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任元彬 委員; 그래도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 그래도 세계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 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이 누구며 회사는 어떤 회사며 연락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사고가 딱 났을 때 어느 정도......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것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런데 왜 없어? 이것이 다 빠졌단 말이야.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사항이라 못 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님이 아까 주시기로 한 것을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在天; 任元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任元彬委員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시공사 쪽에서 하도급을 저가 하도급을 쥐가지고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사정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발주청이 직접 관여할 성질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본 위원회가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하고 시공사 쪽에서 하도급 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공사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만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공사진행에 차질이 염려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보강해 주어야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任元彬委員님,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 문제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關한法律의 규정에 의해서 던키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에 의한 증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위원장님께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하자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추가적인 공사는 결국은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삼성측에서 무리하게 국산자재를 써야 하는데 외제를 썼다, 이랬을 때 나오는 예산들입니다, 돈들입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법정 가서 다툴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책임은 삼성 이사장을 우리가 증인채택 하지 않는 한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委員長 鄭在天; 그러니까 任元彬委員님, 건설단장으로부터 그 얘기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이 너무 무리하게 가고 국산자재 쓸 것을 외산자재 써서 자재금이 증액되어서 들어가니까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在天; 공사 진행에.....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현재로써는 하도급업체 때문에 공사가 직접적인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任元彬 委員; 재차 얘기할게요. 왜냐 하면 이것이 답이 안

나온다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삼성 이사장하고 서울시 시장, 부시장,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도급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 서울시 문제점도 큼니다. 공사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委員長 鄭在天; 정식으로 건설단장은 공사금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공사금 증액을 정식으로 요구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삼성측에서는 그 동안 공사를 돌관작업을 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일 동안 할 것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당긴 금액에 대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어차피 금년 12월 27일 끝나려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87%의 공정이 당초 계약 공정입니다, 빨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돌관공사비에 대해 지급해야 될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공사를 갑자기 당기게 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의당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은 돌관공사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측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준 상황입니다.

○委員長 鄭在天; 그 문제는 좀더 任元彬委員님께서 확인도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더 확인해 보고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奇德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奇德 委員; 金奇德委員입니다.

단장께서는 일전에 비가 왔을 때 구장 현장에 가 보신 일
이 있는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며칠 전에 말씀이신가요?

○金奇德 委員; 28일이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28일 저녁에 제가 갔습니
다. 저녁에 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들렀습니
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비가 오전에 왔는데 저녁에 갔으니까
비가 안 올 때 가셨군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때는 그렇게 심한 비는
아닌 것으로.....

○金奇德 委員; 혹시 직원들도 그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저희 감독요원이나 과장들
도 그날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계획공정보다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87.6%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원래 최초에 구장을 건설할 때 당시는 내년
즉 2002년 3월인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현재 9월이면 모든 것이 완료된
다, 그래서 9월 이후는 시험운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
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면서 마무리 부분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10개 경기장 중에 울산에 있는 경기장이 비가 샌다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만큼 너무 쫓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날 비가 왔을 때 본위원이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스탠드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 슬래브 처마 위 쪽에서 벽면을 타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 하고 제가 별 다른 이의 제기는 안 하고 왔습시다만,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그날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아니, 오전에 비가 왔을 때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보고 받았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을 무리하게 단축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가 아주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9월말까지 대략의 공사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경우에는 상당히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저희들이 조직위원하고 협의해서 아직도 매듭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하고 시운전이나 조정을 완료하려 하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이 9월말까지는 갖추어

져야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가지, 그것을 하면서 다시 조정하거나 시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회사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9월말까지는 대충의 기본적인 문제는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더 조정이나 시험운영, 보완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 단축으로 인한 어떤 부실문제는 제가 더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의 걱정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샌 것은 아까 제가 막구조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붕구조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반절은 막이고 또 반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밑에 프레임이라고 해서 창호 같은 프레임이 꼭 들어가 있고, 그 외 유리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프레임마다 가스켓하고 코킹이 전부 짜여져서 딱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샌 염려는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붕의 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 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링이나 코킹 자체 자체가 탄성이 있어서 그렇게 물이 크게 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그래도 샌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밑에 U자형 트렌치를 또 만들었습니다, 프레임 자체에.

그래서 그리로 물이 샌 것은 프레임에 붙어있는 U자형 배

수트렌치를 타고 물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의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프론막 부분은 구조가 한 마디로 우산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만 거기다 대봤기 때문에, 우선 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만 대봤고, 그 이음매 부분은 전부 덮개를 다 씌워서 용접하고 전부 붙여야 됩니다.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아직 이음매 부분에 비가 좀 샀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奇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닙니다.

단지, 아직 위를 안 씌우고 또 마감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왔어요.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이상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비가 올 때 마무리되기 전에 현장을 나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누수현상이 있는가를 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더욱더 제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全團長님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것이 행동과 일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기획도 하고 있고 합시다만 주체 해당구인 마포구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비를 받았든지 또 구비를 가지고 지금 행사준비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일전에 꽃 식재와 관련해서 용역심의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일 되었죠?

그래서 약 7억에 가까운 꽃을 그 부근에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심는다, 그러면 지금 왜 용역을 주느냐 하면 지금부터 과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국적으로 꽃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고, 또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 각 종목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종을 할 시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7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던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관계공무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오지를 않았습시다. 물론 소관이 아마 조경과인가 그렇습시다.

과거에도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 또는 인도 보도블록과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또 다른 지침이 내려가고, 한 다음에 내려가고, 이래서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강력질의도 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안이 다 마련되어서 할 때 또 서울시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조경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참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관련부서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때 관련 공무원이 나와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고 어

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불광천 호안에 무슨 FIFA WORLDCUP JAPAN KOREA 이것이 써져 있는 것을 꽃으로 장식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검토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6월이면 우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작스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꽃이 씻겨 내려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홍수에 관계해서 꽃 부분을 어디까지를 사면에다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뭐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없이 막연하게 교각에다가 꽃을 두르고, 그런 데다, 하고 이런 계획만 세워서 있더라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업무체계가 서울시하고 네트워크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되고, 앞으로 마포구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 심의를 할 때 필히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당연히 맞는 말이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저희들이 진짜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마포구에 얘기를 해서 그런 때에 필요한 부서가 저희들한테 직접 협의하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라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요청을 했다는데 안 온 거예요,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왜 참석을 안 했는지에 대한 사안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建設安全管理本部 할 때도 불광천 횡단하는 구장 앞에 다리 이름을 가지고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團長님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리 이름을 지금 뭐라고 명을 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아치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지요.

그런데 다리를 월드컵교로 한다, 주민 설문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협의적인 것보다는 제2성산대교가 앞으로 월드컵대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이 명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D-day 1년 행사가 원래 4만여 명의 관중을 동원해서 크게 치르려다가 여러 가지 경기장 건설일정과 관련해서 취소가 됐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金奇德 委員; 그리고 이번에 새서울가꾸기 2,500명으로 했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삼성측이나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 하고, 관계부서에 업무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1년 행사를 한다, 그래서 각 동까지도 그것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취소를 했던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주의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저희가 6만 5,000석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한 반 정도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행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3만명을 동원하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단에서 볼 때 공사가 아무래도 지장을 받겠다, 그렇다면 공사가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될 바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推進團에서 세웠던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임시적인 시설로서 대응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그 수준에 맞게끔 지금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金奇德 委員; 그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동사무소에까지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려 놓은 사안인데 이것이 나중에 취소가 됐을 때 기대에 부풀었던 부분이 허망하게 돌아간 꼴이 됐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좋은 시설을 보여드리려고.....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부터 세워놓고
관련부서의 업무협조를 받다 보니까 建設團에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建設團
소관은 아니지만, 建設團도 관계되지요.

왜냐 하면 推進團에서 했더라도 건설하고 관련해서 일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네.

○金奇德 委員;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월드컵구장에 할인점, 상가, 전문식당,
체육시설,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문화시설, 영상관, 월드컵
기념관 해서 사후에 시민편익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시설들이 시민이 직
접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변여건이 시민 스스
로 찾아와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보완이 되
지 않으면 어쩌면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보다야 좀 낫겠지
만 나중에 이런 사후시설 활용이 희석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평화의 공원, 새천년 신도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
부와의 밀접한 협의관계가 안 되고 있고 해서 천년의 문도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파크도 나중에 보류가 돼
서 뒤에 만들기로 했고.

그러면 서울시내 시민들이 오게 하려면 평화의 공원 하나
가지고 오겠느냐, 그래서 정말 시민이 그곳에 와서 동시에 이
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늘 그런 생
각을 하고, 앞으로 사후시설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고돼야만 되지 구장만 덜렁하니
들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아시다시피 천년의 문, 평화의 공원,
밀레니엄공원, 그러니까 환경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시설을 위
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2년에 수익시설이 오픈될 계획인데 그때 공원시설
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이용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면 그때 가서 충분히 나중에 재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
금은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 이런 것들이 공원시설이고, 또 밀레니엄공원이
약 110만평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그렇
게 늦지 않다,

물론, 초기에 수익시설에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계획된 대로 오픈을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 돼야 되지 않겠
느냐 생각합니다.

○金奇德 委員; 그런데 지금 계획이 서지 않고 나중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테니스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평화의 공원에
자리가 없어서 두 면밖에 못 만든다, 漢江事業企劃團에서 그
러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또 거기는 이미 개발을 시켜놓고
부지 같은 데를 나중에 가서 결정한다든가.....

그래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시

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어느 부서에서 그와 관련한 월드컵구장의 사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 일대의 조망권이라든지 편익시설, 모든 것들이 시민 위주의 계획이 나와야지 공원만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市政開發研究院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鄭在天; 金奇德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 全希相 團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3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 공정을 앞당겨서 사실상 금년 9월이면 모든 공정이 각 분야별로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일도 그렇지만 마무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9월이면 마무리가 다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정을 잘 이끌어서 마무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드컵 주경기장은 수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그

런 다중이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공과정에서 建設技術管理法上의 규정에 따라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확보를 충분히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정밀점검을 통해서 다중시설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월드컵 주요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건설에 각종 첨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모든 경기를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경기장 주변지역에, 아까 鄭鉉均委員님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장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6分 散會)

○出席委員

鄭在天 金奇德 趙泰鎮 金魯珍

金善會 金俊明 金平城 李康玉

任東淳 任元彬 鄭韓植 鄭鉉均

咸泰浩 車元甲 朴正哲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全希相

○其他參席者

麻浦開發公社 事業理事 尹丙汝